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구성요소와 사회적 여성성과의 상관성 연구 - 미용학 전공 여대생 관점으로

박장순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onents of Modern Girl Hair Style and Social Feminine Performance

Jang-Soon Park
Professor, Beauty arts department, Songwon University

요약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타인과 경쟁 시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보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인생 설계를 위한 진취적 자조론(自助論)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량을 겸비한 여성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920, 30년대 봉건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독립적이며 자주성을 표출한 모던걸이 구사하던 헤어스타일의 앞머리 커트, 아웃라인 표출, 층 단차, 질감 변화 등 구성요소들과 사회적 여성성(女性性)과의 상관성을 미용학 전공 여대생들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대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역할을 견고히 확립할 수 있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헤어 트렌드의 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대사회 여성리더의 사고(事故)와 심리에 대한 표준화를 도출하며, 창조적인 미(美)의 발현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회 주체로서 자주적 여성성의 정립을 위한 초석(礎石)을 다질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모던걸, 헤어스타일, 여성성, 창의성, 사회적 독립성

Abstract In modern society, appearance is an important means of competing with others, and therefore it can not be neglected in social lif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odern society demands femininity which combines progressive self - help for designing a dignified and independent life and a new paradigm. Therefor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lements such as bang cut, out line expression, layer step and texture change of modern style that modern and independent expressing independence and independence in the 1920s and 30s'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is study makes it possible to present a novel and innovative hair trend that can firmly establish the independence and social role of modern wome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derive the standardization of thinking and psychology of the leader of modern society,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femininity as a social subject that maximizes individual competence through the manifestation of creativity.

Key Words : Modern girl, Hairstyle, Femininity, Creativity, Social independence

1. 서론

인간의 첫인상을 좌우하고 이미지 변신 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성격, 인격, 가치관 뿐만 아니라 당대(當代)의 문화를 대변하는 도구이다. 현대사회에서 외모(外貌)는 타인과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대한 수단이며[1] 패션(fashion)과 더불어 시대적 가치관과 문화사조를 표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2]. 현대인의 미(美)에 대한 본능적 지향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한 인간 본연의 기본 욕구이며[3],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욕구의 표출 수단이나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 외모 치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K-POP'와 함께 'K-뷰티'의 열풍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급진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현대산업의 커다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광속(光速)으로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의 급격한 시류(時流)와 정보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본인의 인생을 담당하고 독립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친척적 자조론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량을 겸비한 여성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유교적이고 봉건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고정관념과 봉건적 전통에 당당히 저항하면서 독립적이며 자주성을 강하게 어필한 모던걸 집단을 표본으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근대 사물의 공간인 백화점, 문화의 공간인 다방과 같은 물질문명과 근대적 감각을 함양한 모던걸의 양가적(兩價的) 행태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5]와 달리 미용학 전공 여대생들의 관점으로 모던걸이 구사하던 헤어스타일의 구성요소와 젠더 정체성인 사회적 여성성과 상관성을 조명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립에 기여할 참신한 뉴 모드의 헤어 트렌드의 분석과 현대사회 리더로서 여성 심리에 대한 표준화 제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헤어 트렌드와 연계하여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자주적 여성성의 정립을 설계하기 위한 초석(礎石)을 다지게 된다.

2. 이론적 배경

2.1 1920, 30년대 여성 미용사(美容史)

1920년대는 가부장적(家父長的) 사회의 전통적 여성

상과는 판이(判異)한 모던걸들이 등장한 시기였다. 전 지구적 현상인 모던걸의 등장은 남성 중심성에 대한 일종의 도전성과 함께 근대성 자체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성(性) 차별적 사회의 지배담론은 모던걸을 기존의 전통적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분방하며 일탈된 삶을 영위하는 부류로 분류하였다[6]. 근대적 기능화의 여파와 신여성(新女性)의 출현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증가하였고 미용사의 태동과 최초의 미용실 개설도 있었다. 당시 미용실에서는 퍼머먼트 웨이브뿐만 아니라 마사지(massage), 모발 염색, 손톱 매니큐어까지 시술하였으며 주요 고객은 대부분 기생(妓生), 멋쟁이 신여성, 영화배우, 연극단 배우들이었다[7]. 퍼머먼트 웨이브 도입 초기에는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 아이론(iron)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화력(火力)을 이용한 아이론으로 만든 웨이브는 세발(洗髮)을 하면 금방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모발이 많이 손상되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서구에서 수입한 퍼머먼트 웨이브 도구는 한 차례에 걸쳐 모발 전체를 웨이브로 변신시킬 수 있는 편리한 장점이 있었다[8]. 전근대적인 헤어스타일의 개념을 떨쳐버리지 못하던 트렌드는 1920년대에 이르러 헤어 커트가 전체적 이미지를 결정짓는 단발로 유행의 흐름이 변하게 되었다[9]. 이 밖에도 세미 업스타일(semi up-style), 지라시(chirashi), 링고 스타일(lingo style)도 등장하여 당대 여성들은 즐겨 하였다.

2.2 헤어디자인적 요소

헤어스타일은 각기 다른 헤어디자인적 구성요소들이 지니는 시각적 특성들을 서로 조합시켜 단순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완성체로 형성된다. 헤어디자인의 구성요소에는 형태, 질감, 색상이 있으며 구성요소들의 시각적 특성은 헤어스타일의 전체적 이미지에 중대한 시각적 매개체로 작용한다. 더불어 시술자의 내면을 타인에게 표출시키는 비(非)언어적인 전달 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10]. 헤어스타일 분석에서 질감은 모발의 움직임에 따라 시각적 이거나 촉각적인 느낌으로 표출되며 역동적(activated), 비역동적(un-activated), 혼합형(combination) 등의 질감으로 구분된다[11]. 헤어 커트로 인한 모발 끝의 활동성 유무(有無)에 따라 질감이 서로 확연하게 구별되며, 업스타일에서는 모발 표면의 표현되는 패턴에 따라 질감이 구별된다[12]. 따라서 모발 질감의 변화는 기본 성질에 따라 표현되기도 하지만 물리적, 화학적 시술로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전체 이미지 조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13].

3. 연구 방법

3.1 측정 도구의 구성

모던걸 헤어스타일에서 표출되는 구성요소들과 사회적 여성성과의 상관성 연구를 위하여 2019년 11월 미용학을 전공으로 하는 여대생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여 모던걸 사진 10장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년, 연령,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포함하여 모던걸의 앞머리 커트, 아웃 라인 표출, 층의 단차, 질감 변화 등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에 관한 인식 4문항 등 총 8문항의 측정 도구로 구성하였다. 일제 강점기 모던걸의 헤어스타일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여성성에 관한 인식 문항의 신뢰도(Cronbach_α)는 0.794로 0.7 이상의 수준을 보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3.2 자료 분석방법

수령된 총 130부의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참여한 7부는 제외를 시켜 최종적으로 123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 패키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유의수준은 모두 0.05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모던걸의 헤어스타일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여성성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 Test)은 명목형 변수에 대하여 집단 간에 통계적인 차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통계 검증방법이다.

4. 분석 결과

4.1 앞머리(bang) 커트

동시대성(同時代性)으로 이어지는 근대적 감각을 지닌 물질문화의 상징적인 아이콘(icon)이었던 모던걸의 앞머리 커트에서 지각되는 사회적 여성성은 진취성 35.0%, 사회적 독립성 28.5%, 자존감 21.1%, 창의성 15.4% 순으로 나타났다. 1920, 30년대 일반여성들은 앞머리를 특별히 커트하지 않았으며 멋을 부리던 일부 여성들은 가르마를 타서 멋있게 하던지 세트(set)나 아이콘으로 웨이브를 내면서 앞머리 모양을 내는 수준이었다는 선행연구[14]에 준거하여 당시 파격적으로 앞머리를 커트한 모던걸 헤어스타일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사회적 진취성은

우선으로 지각하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 유무 확인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유의확률이 0.376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마찬가지로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은 각각 0.073, 0.378, 0.246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Table 1. Comparison of female sex differences in bang cut

		Self-esteem	Initiative	Social independence	creativity	χ^2 (p)
All	frequency	26	43	35	19	
	ratio (%)	21.1	35.0	28.5	15.4	
1 Grade	frequency	14	14	15	6	
	ratio (%)	28.6	28.6	30.6	12.2	
2 Grade	frequency	4	8	9	4	9.692 (0.376)
	ratio (%)	16.0%	32.0%	36.0%	16.0%	
3 Grade	frequency	6	12	10	5	
	ratio (%)	18.2	36.4	30.3	15.2	
4 Grade	frequency	2	9	1	4	
	ratio (%)	12.5	56.3	6.3	25.0	
20-23 age	frequency	23	30	28	17	
	ratio (%)	23.5	30.6	28.6%	17.3	
24-26 age	frequency	2	7	7	0	11.561 (0.073)
	ratio (%)	12.5	43.8	43.8	0.0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1	6	0	2	
	ratio (%)	11.1	66.7	0.0	22.2	
More than a metropolis	frequency	16	20	23	12	
	ratio (%)	22.5	28.2	32.4	16.9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frequency	7	12	7	6	6.418 (0.378)
	ratio (%)	21.9	37.5	21.9	18.8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3	11	5	1	
	ratio (%)	15.0	55.0	25.0	5.0	
single	frequency	25	39	35	17	
	ratio (%)	21.6	33.6	30.2	14.7	4.149 (0.246)
married	frequency	1	4	0	2	
	ratio (%)	14.3	57.1	0.0	28.6	

4.2 아웃 라인(Out line) 표출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특성 중 아웃 라인 표출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여성성은 진취성 33.3%, 사회적 독립성 26.8%, 자존감 22.0%, 창의성 17.9% 순으로 나타났다. 1920, 30년대 일반여성들이 애용한 헤어스타일은 뽀얀 머리, 까미머리, 트레머리, 땡기머리, 칩지머리 등의 롱 헤어로서 명확한 아웃 라인이 표출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모던걸의 헤어스타일은 역동적이고 과격적인 아웃 라인을 표출하는 특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들은 시대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진취성(進取性)을 지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5$).

Table 2.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out line length setting

		Self-esteem	Social independence	creativity	χ^2 (p)
All	frequency	27	41	33	22
	ratio (%)	22.0	33.3	26.8	17.9
1 Grade	frequency	14	13	14	8
	ratio (%)	28.6	26.5	28.6	16.3
2 Grade	frequency	4	8	6	7
	ratio (%)	16.0	32.0	24.0	28.0
3 Grade	frequency	6	14	7	6
	ratio (%)	18.2	42.4	21.2	18.2
4 Grade	frequency	3	6	6	1
	ratio (%)	18.8	37.5	37.5	6.3
20-23 age	frequency	25	27	27	19
	ratio (%)	25.5	27.6	27.6	19.4
24-26 age	frequency	1	10	3	2
	ratio (%)	6.3	62.5	18.8	12.5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1	4	3	1
	ratio (%)	11.1	44.4	33.3	11.1
More than a metropolis	frequency	17	22	18	14
	ratio (%)	23.9	31.0	25.4	19.7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frequency	6	12	10	4
	ratio (%)	18.8	37.5	31.3	12.5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4	7	5	4
	ratio (%)	20.0	35.0	25.0	20.0
single	frequency	26	38	31	21
	ratio (%)	22.4	32.8	26.7	18.1
married	frequency	1	3	2	1
	ratio (%)	14.3	42.9	28.6	14.3

4.3 층(layer)의 단차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층의 단차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여성성은 창의성 35.0%, 진취성 23.6%, 자존감 21.1%, 사회적 독립성 20.3% 순으로 나타났다.

당대(當代) 유행하던 뽀얀 머리, 까미머리, 트레머리, 땡기머리, 칩지머리 등은 층의 단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은 모던걸 헤어스타일에서 시대를 앞서가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창의성(創意性)을 많이 지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2학년 집단은 창의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64.0%로 타 학년에 비하여 높은 반면 4학년은 6.3%로 낮았으며, 진취성과 사회적 독립성

Table 3.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layer steps

		Self-esteem	Initiative	Social independence	creativity	χ^2 (p)
All	frequency	26	29	25	43	
	ratio (%)	21.1	23.6	20.3	35.0	
1 Grade	frequency	15	7	11	16	
	ratio (%)	30.6	14.3	22.4	32.7	
2 Grade	frequency	2	6	1	16	23.197 (0.0006)
	ratio (%)	8.0	24.0	4.0	64.0	
3 Grade	frequency	5	10	8	10	
	ratio (%)	15.2	30.3	24.2	30.3	
4 Grade	frequency	4	6	5	1	
	ratio (%)	25.0	37.5	31.3	6.3	
20-23 age	frequency	22	21	17	38	
	ratio (%)	22.4	21.4	17.3	38.8	
24-26 age	frequency	2	6	3	5	11.725 (0.068)
	ratio (%)	12.5	37.5	18.8	31.3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2	2	5	0	
	ratio (%)	22.2	22.2	55.6	0.0	
More than a metropolis	frequency	18	17	15	21	
	ratio (%)	25.4	23.9	21.1	29.6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frequency	5	8	6	13	3.075 (0.799)
	ratio (%)	15.6	25.0	18.8	40.6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3	4	4	9	
	ratio (%)	15.0	20.0	20.0	45.0	
single	frequency	24	28	21	43	
	ratio (%)	20.7	24.1	18.1	37.1	8.011 (0.046)
married	frequency	2	1	4	0	
	ratio (%)	28.6	14.3	57.1	0.0	

부분에서 각각 37.5%, 31.3%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5$).

거주지 유형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리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p<0.05$) 미혼 집단은 창의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37.1%인 반면 기혼 집단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독립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57.1%로 높게 나타났다.

4.4 질감 변화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질감 변화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여성성은 창의성 35.0%, 진취성 23.6%, 자존감 21.1%, 사회적 독립성 20.3% 순으로 나타났다. 당대 여성들 대부분은 퍼머넌트 웨이브를 시술하지 않은 생머리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매끈한 모발 질감을 지닌 자연 상태였다. 이는 선행논문[15]에 준거하여 조사대상자들은 파격적인 웨이브를 선호인 모던걸 헤어스타일에서 창의성을 지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년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는 2, 3학년의 경우 자존감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각각 0.0%, 6.1%로 매우 적은 반면 1학년과 4학년은 각각 18.7%, 25.0%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3학년은 창의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48.6%로 타 학년에 비해 높았다.

Table 4. Comparison of female sex differences in texture change

		Self-esteem	Initiative	Social independence	creativity	χ^2 (p)
All	frequency	23	29	25	46	
	ratio (%)	18.7	23.6	20.3	37.4	
1 Grade	frequency	17	7	10	15	21.14
	ratio (%)	34.7	14.3	20.4	30.6	0 (0.01)
2 Grade	frequency	0	10	5	10	2)
	ratio (%)	0.0	40.0	20.0	40.0	

3 Grade	frequency	2	8	7	16	
	ratio (%)	6.1	24.2	21.2	48.5	
4 Grade	frequency	4	4	3	5	
	ratio (%)	25.0	25.0	18.8	31.3	
20-23 age	frequency	20	20	18	40	
	ratio (%)	20.4	20.4	18.4	40.8	
24-26 age	frequency	1	7	5	3	7.699
	ratio (%)	6.3	43.8	31.3	18.8	(0.261)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2	2	2	3	
	ratio (%)	22.2	22.2	22.2	33.3	
More than a metropolis	frequency	16	18	17	20	
	ratio (%)	22.5	25.4	23.9	28.2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frequency	2	4	6	19	12.258
	ratio (%)	9.4	12.5	18.8	59.4	(0.056)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4	7	2	7	
	ratio (%)	20.0	35.0	10.0	35.0	
single	frequency	21	29	23	43	
	ratio (%)	18.1	25.0	19.8	37.1	2.444
married	frequency	2	0	2	3	90.485
	ratio (%)	28.6	0.0	28.6	42.9	

5. 결론

미용학 전공 여대생의 관점에서 본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구성요소와 사회적 여성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던걸의 앞머리 커트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은 진취성 35.0%, 사회적 독립성 28.5%, 자존감 21.1%, 창의성 15.4%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아웃 라인표출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여성성은 진취성 33.3%, 사회적 독립성 26.8%, 자존감 22.0%, 창의성 17.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던걸 헤어스타일 층의 단차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창의성 35.0%, 진취성 23.6%, 자존감 21.1%, 사회적 독립성 20.3%로 나타났다.

넷째,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질감 변화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창의성 35.0%, 진취성 23.6%, 자존감 21.1%, 사회적 독립성 20.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미용학 전공 여대생들의 인식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더불어 현대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역할을 견고히 확립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헤어 트렌드의 제시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 여성 리더의 사고와 심리에 대한 표준화를 도출하며, 창조적인 미(美)의 발현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회 주체로서 자주적 여성성의 정립을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M. Y. Jang & G. Y. Kang. (2017). Convergent Relationships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79-87. DOI : 10.15207/ JKCS.2017.8.4.079
- [2] Y. Y. Na. (2002). *Study on change in hairstyle of Korean women : focused on period from 1900's to 1990's*, Master Thesis, Ho-nam university.
- [3] G. H. Son & J. S. Park. (2018).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 Men A Study on Correlation with Preference for Female Hair Sty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9), 263-270. DOI : 10.15207/ JKCS.2018.9.9.263
- [4] J. S. Park & H. J. Kwon. (2017). Perception about Makeup Influence on Man's Makeup and Their Succ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231-237. DOI : 10.15207/ JKCS.2017.8.4.231
- [5] N. H. Park. (2015). Thinking Modernity and the Trans-Rolling of Things: Material Culture of "Modern Geol" and Modern Sense in the 1930s PDF icon. *Journal of the Contemporary Art History*, (38), 33-60. DOI : 10.17057/kahoma.2015..38.002/ UCI : G704-001519.2015..38.002
- [6] J. Y. Moon. (2009). L'image et la représentation des 'Garçonnes' dans les années 1920 de France. *Journal of French Society*, (20), 131-152. KDC 926.005.
- [7] S. J. Jun. (2001). *Beauty aesthetics and beauty culture history*. Seoul : Chung-gu Publishing Co. DDC 646.70918.
- [8] S. K. Yu. (1990). *Changes in Korean Women's Wear*. Seoul : Il-Gy Publishing Co. KDC 381.3509/ DDC 391.009519.
- [9] S. J. Lim. (2006). Research Paper : A Study on Formative Changes of Hair Cut in the 20th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2(1), 31-39. KDC 593.05/ UCI(KEPA) : I410-ECN-0102-2009-590-000446105
- [10] J. W. Ryu. (2007). The Effect of Male Make-up and Hair Style on the Impression Percep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3(3), 1345-1355. UCI(KEPA) : I410-ECN-0102-2008-590-002636316
- [11] L. Passage. (1997). *Hair Sculpture Ladies*. Chicago : Pivot Point International.
- [12] S. Y. Choi. (2018). *A study on Aesthetic implication of*

hairstyle in 20th century: Focused on Modernism and Post-Modernism. Doctoral thesis, Kon-kuk university. UCI I804:11004-200000101726

- [13] Y. O. Park & S. Y. Yoon. (2007). Analysis of Hair Design appeared in Futurism Fashion -Focused on 2007 Spring & Summer Fashion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3(1), 123-133. UCI(KEPA) : I410-ECN-0102-2008-590-002643520
- [14] Y. G. Jeon et al. (1995). *Living in Korea 100 c*. Seoul : Jang-won Publishing Co. DDC 392.09519 17.
- [15] J. S. Park. (2018). Analysis of hair design formative factors in the women's one length hair style in the Imperial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0), 479-484. DOI : 10.14400/JDC.2018.16.10.479

박 장 순(Jang-Soon Park)

[정회원]



- 2013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 학과(미용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미용 통계, 헤어미용,
- E-Mail : anima2929@hanmail.net